

국립암센터 심볼마크

생명력이 몹시 강하여 영하 30~40°C의 추위에도 푸른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만병초의 잎을 형상화, 암 환자들이 강인한 의지로 병을 이겨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.

## ‘세계 최고의 암센터’ 를 약속하는

# 국립 암 센터



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질환 암! 지금도 매일 평균적으로 약 18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고, 매일 약 300여 명이 새로운 암 환자로 진단받고 있다. 그러나 암은 예방도 가능하고 초기 발견 시에는 치유도 가능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.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암으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이용범 시설부 팀장(※사진)을 만나보았다. 글 | 이미숙 협회 경영기획부 대리



## 국립암센터란?

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는 2000년 1월 12일 제정, 공포된 국립암센터법(법률 제6149호)에 따라 국가에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6월 20일에 설립되었다.

“신 개념의 연구, 최상의 진료, 우수한 암 전문가 육성 및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하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여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거듭난다.”는 비전 아래, 국가 의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5대암 검진사업의 전 국민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지상 12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.

특히 국립암센터는 양성자 치료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, 양성자 치료기는 정상조직을 보호하면서 암 병소에만 방사선을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암치료기로서, 국내에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암 관련 연구기반 강화 및 암 치료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암 환자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최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## 최고의 소방시설 갖춰

병원동, 연구동, 양성자동, 행정동 등 지상 4개동 규모로서, 현재 양성자동 지상층에 국가암검진지원센터를 신축 중인 국립암센터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건물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최고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. 각 치료실 및 입원실, 사무실 등에는 아날로그 감자기를 설치하였으며, 의료장비 설치구역에는 청정소화약제설비를 설치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



“신 개념의 연구, 최상의 진료,  
우수한 암 전문가 육성 및  
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하여 국민을  
암으로부터 보호하여  
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거듭난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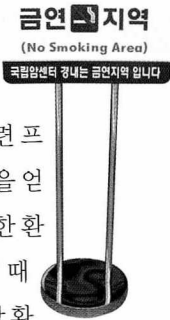
고 있다. 또한 전 구역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 소화전, 소화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CO<sub>2</sub> 소화설비 등을 소방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여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## 환자들에 대한 피난 대책 마련 중요

국립암센터는 화재를 예방, 경계,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매달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. 또한 연 1회

“금연운동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, 이를 통해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벽, 천장 등 시설까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”

이상 관찰 소방서와 협의하여 종합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론교육 보다는 실제 비상 시 사용될 수 있는 체험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 직원의 호응을 얻고 있다. 특히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한 피난대책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,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대피해야 할 환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피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병실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도를 부착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. 또한 앞으로는 ‘화재취약지구’를 선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 이외에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. 한편, 국립암센터에서 특이한 점은 암센터 경내에서는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금연이며, 전 직원이 금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. 이용범 시설부 팀장은 “금연운동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, 이를 통해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벽, 천장 등 시설까지 깨끗하게 유지, 관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”라고 한다.



### 화재예방의 생활화 필요

18년간 안전관리 업무의 외길을 달려온 이용범 시설부 팀장은 “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지부지하는 경향이 많다.”며 “최근 건축물은 대형화·복잡화·심층

화 되고 있는 만큼 건물의 설계 및 시공, 소화·방화 설비 설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화재 예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. 또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지도와 초등학생 때부터 화재안전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화재예방의 생활화가 정착되어야 한다.”고 강조하였다.

### 협회의 안전점검에 관하여

“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위험진단은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을 점검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”이라는 이용범 시설부 팀장은 “그러나 소방 및 방재시설이 소방법과 건축법에 의해 시공되고 소방시설의 인·허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.”며 제도화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.

### 암 환자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

###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립암센터!

### 머지않아 명실 공히 “세계 최고의 암센터”가 되어

###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건강을

### 지켜준은 물론, 암이 ‘치료하기 어렵고

### 사망에 이르는 병’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

### 지금의 감기 수준으로 느낄 수 있는

### 희망의 날이 오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. ☺